

‘표준국어대사전’ 장애 관련 어휘 없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특수교사’ 등 대부분이 미등재 장애 관련 주요 법률용어도 없어 무관심·왜곡 부추겨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법적 장애 유형 대부분이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왜곡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장애인지원센터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장애 관련 어휘의 국어사전 등재를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표준국어대사전(이하 사전)에 ‘복지관’ ‘특수교사’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 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장애 관련 어휘

들이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법정 장애유형 15개 중 사전에 등재된 어휘는 ‘정신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3개 뿐이었다.

센터는 사전에 누락된 장애 관련 어휘들의 언론 노출 빈도(지난해 8월~올해 8월 10대 중앙 일간지 대상)를 조사한 결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12개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 2235건, ‘청각장애’ 866건, ‘지체장애’ 471건, ‘뇌병변장애’ 83건, ‘자폐성장애’ 82건 등 순이었다.

또 ‘복지관’ ‘활동지원’과 같은 서비스 기관 관련 어휘, ‘편의시설’ ‘스크린도어

(안전문) 등 이동권 관련 어휘, ‘통합교육’ ‘특수교사’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장애 관련 주요 법률 용어 등도 사전에 등재되지 않았다.

센터측은 국립국어원이 새로운 어휘를 사전에 등재할 때 언론 노출 빈도를 주요 근거로 삼지만, 장애 관련 어휘에 대해서는 이 같은 원칙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삼호 센터 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국립국어원이 장애 관련 어휘를 비롯한 소수자 어휘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일상적인 국어 정책을 논할 때 반드시 관련 당사자와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어기본법’을 개정해 국어심의회에 장애인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손흥일 대구대 영어영문학과 교수는 “나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나를 포함한 대다수 장애인들이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들에 노출되고 있다”며 “장애 비하 용어들을 대신할 수 있는 가치중립적인 용어가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귀희(1급 지체장애)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는 “단어는 사회의 문화 수준을 대변한다”며 “국립국어원은 장애인에게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장애에 대한 왜곡이 심하게 장애인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사회모델과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입각한 ‘장애학사전’ 제작 등의 제안이 나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충장동 생일·장수 어르신 6명 ‘수연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지난 8일 충장동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음악 공연과 함께 흥겨운 생일 잔치가 벌어졌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은 잔치를 열어준 지역 주민들에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다.

충장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신을 맞은 지역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축하와 장수를 기원하는 수연례(壽宴禮) 행사다. 이 행사는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만 65

세 이상)과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 ‘신부넷’과 충장동 새마을협의회·부녀회, 주민들이 준비한 자리다.

행사에 초대받은 어르신 6명은 축하객 50여명과 함께 전통한복으로 단정하고 생신 상차림과 퓨전난타, 가야금병창 축하 공연, 선물 전달, 장수사진 촬영, 잔치음식 함께하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장기요양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복지부, 장려금 6만~10만원 수준으로 상향

고령화로 인해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오른다. 내년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결정됐다.

장기요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장기근속 종사자에게는 전보다 많은 장려금이 지급되고, 치매 노인 가족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도입된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차 장기요양위원회는 ‘장기근속 장려금 개편안’과 ‘24시간 방문요양 개편안’, ‘2019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사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을 기존 4만~7만원에서 6만~1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적용되며 근속 연수에 따라 지원액은 달라진다. 7년 이상 종사자는 내년부터 월 10만원을 받게 된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에겐만 지급하는 장려금을 다른 직종에도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를 16~24시간 연속해 받을 수 있는 ‘24시간 방문요양’ 제도도 개편된다. 내년부터는 1회 최소 이용시간을 12시간으로 두고,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본인부담금은 12시간 기준 1만 2000원으로 줄어든다.

이 제도는 1회 최소 급여 제공시간이 16시간으로 정해져 있어 필요한 때 원하는 만큼 분할해 사용할 수 없고, 수급자 본인 부담금이 1회 2만 3000원으로 다소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9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5.36%로 결정됐다. 시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 6.08%, 노인공동생활가정 6.37%, 주·야간보호시설 6.56% 등이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 이용 시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 기준으로 6만 5190원에서 6만 9150원으로 인상되는 등 등급별로 3390원~3960원 올라간다.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이용한도액도 1등급의 경우 139만 6200원에서 145만 6400원으로 올라가는 등 등급별로 3만 4000원에서 6만 200원 늘어난다.

2019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액의 8.51%로 올해(7.38%)보다 1.13%포인트 인상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현재 서비스 이용자는 약 50만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북구,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주민 삶의 질 개선

광주시 북구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나선다.

북구는 첨단2산업 체육공원에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5000㎡ 규모 북구 종합체육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내년 1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거쳐 2019년도 균형발전특별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곡인조잔디구장 개

·보수, 게이트볼장과 족구장 등 체육시설 조성, 광주천 두물머리 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개·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은 빠른 시간 내에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영산강변 운동장, 첨단체육공원과 중의·일곡 등 4개 도시공원에 생활밀착형 체육 시설도 확충해 나간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동구청을 방문한 노인이 청사 2층 계단에 설치된 ‘동행의자’에 앉아 쉬고 있다. <동구청 제공>

광주 동구 보행약자 위한 ‘동행의자’ 보급

복지관 등 27곳 90개 설치

광주시 동구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임신부 등을 위한 작은 배려를 선보였다.

동구는 “구청·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어르신·장애인·임신부 등 보행약자를 위한 ‘동행의자’(약칭 동행의자)’를 보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3개년 실행계획 중 하나로 추진된 이번 사업은 노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구청·보건소·동주민센터·복지관 등 다중이용시설 27개소에 1차로 의자 90개를 보급했다. 의자는 쉽게 걸터 앉도록 팔걸이와 등받이를 없앴고 계단 모퉁이처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설치됐다.

동구는 2차로 경로당 110개소에

동행의자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복지관을 방문한 한 어르신은 “무릎이 안 좋아 계단을 오를 때마다 중간에서 한참을 서서 숨을 골랐는데 의자가 설치된 뒤로 편안히 쉴 수 있게 돼 좋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택 동구청장은 “작은 배려지만 어르신들이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느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친화도시에는 WHO(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등 8개 분야 71개 기준을 충족하는 도시다. 전 세계 37개국 500여 도시가 가입되었으며 동구는 지난해 8월 광주 전남에서는 최초로 전국에서 6번째로 가입인증 받았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A 등금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